

# 국제유가, 후세인 체포로 안정될까?

## 12월 국제유가 오름세 안정시킬 듯 ... 트레이더들의 매도 포지션 전망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생포로 앞으로의 국제유가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 9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과 이라크에서 잇따른 테러 발생, 겨울철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2002년에 비해 4-6달러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국제유가 결정요인의 한 변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중동산 Dubai유 평균가격은 이라크 정정 불안에 겨울철 에너지수급 불안이 더해지면서 27.69달러를 기록하며 10월 27.28달러, 11월 27.64달러보다 상승했으며 북해산 Brent유는 29.36달러로 3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는 30.68달러로 10월 31.74달러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30-32달러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33.13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2003년 2월 Dubai유 30.03달러, Brent유 32.62달러, WTI 35.7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나 2002년 평균가격인 23.81달러(Dubai유), 26.09달러(WTI), 25.15달러(북해산 Brent유)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테러가 기습을 부리던 11월19일 Dubai유는 28.97달러, WTI는 33.20달러(11월18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의 생포소식이 원유 거래시장이 휴장하는 일요일에 전해진 탓에 국제유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후세인 전 대통령의 생포가 국제유가 하락을 촉발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해외조사팀 구자권 팀장은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국제유가에 후세인 프리미엄이 3달러 정도 없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라크 석유 시설 파괴가 최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는 트레이더들에게 심리적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구자권 팀장은 "Dubai유는 현재 27-28달러대의 유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부터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트레이더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의 민성환 전문연구위원도 "후세인의 생포가 직접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이라크 원유 생산 정상화 노력 가속, 테러약화 등에 기여해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부 염명천 과장은 "이라크 사태는 몇 달 전에 게임이 끝난 것이어서 후세인의 생포와 국제유가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이와 무관하게 국제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세인의 생포가 국제유가에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후세인 전 대통령의 체포가 이슬람 내 반미세력의 규합을 이끌어 또다른 테러를 양산할 수 있어 오히려 국제유가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 OPEC이 2004년 초 또 한차례 감산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16>